

## 9. 사무엘기(상·하)

사무엘기 상권은 이스라엘에 왕정 제도를 도입한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하권은 다윗의 통치에 집중합니다.

왕정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내적으로는 200여 년 동안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관개 시설과 상업제도 등을 부족 단위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강력한 중앙 통제 조직이 필요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막강한 철제 무기와 잘 훈련된 정규군 그리고 용병들을 앞세운 필리스티아인들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인 엘리 사제는 늙고 무능했으며 두 아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급기야 실로에 모셔 두었던 주님의 계약 궤를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깁니다(7개월 만에 돌려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민족들처럼 왕정 제도의 도입을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현존이 약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그리고 외적의 침입과 사회·정치·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이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서는 믿음직한 예언자이며 판관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와 주님의 명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울은 주님께 순명하지 않아 내쳐지고 사무엘은 주님께서 새로 선택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가득하여 매사에 성공을 거두는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의 영과 결별한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면서 급속하게 몰락해 갑니다.

이어지는 하권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남북 전체를 포함한 통일 왕국의 첫 임금이 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임금(7년6개월)이 되었던 다윗은 이어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으로서 왕권을 굳히고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한 뒤 계약의 궤를 다윗 성에 모십니다. 하지만 그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는데 그 별로 아들이 죽고 왕자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사상은 신정과 왕정 사이의 갈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은 신정에 철저히 예측되어야 합니다. 왕정의 성공 여부는 이 제도의 주장인 임금이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신 하느님의 명을 제대로 받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 좋은 예이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역대 임금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